

교육과정·수능 불일치...진학지도 혼란 우려

현 중3, 수능서 제외됐던 물리Ⅱ 등 4과목 선택과목 포함 문·이과 통합 사실상 실패...현 중2 학생·학부모도 불안감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미뤄지면서 학교 교육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한 축인 수능이 엇박자로 가게됐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돼 교과목과 수업 방식이 바뀌는데 이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은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형식이기 때문이다. 시험 범위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문·이과 통합 등 새 교육과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새 교과서에 옛 수능체제=지난 31일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은 올해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과 시험영역·평가방식 등이 모두 같다. 이에 따라 현 중3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최대 2과목 선택), 제2외국어·한문 등 최대 7개 영역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 통합과목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2~3학년 수준의 심화 과목만 수능시험 범위가 되는 셈이다.

이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 가운데 많은 학생이 부담을 느끼는 '기하와 벡터' 역시 새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된다.

광주 광덕고 신희돈 교육정보부장은 "2015 교육과정과 현 중3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체제가 맞지 않아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 절대평가를 하고자 한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1년 유

예가 된다면 수업의 변화는 없이 1년간 연장만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학생 선택권 강화 사실상 실패=옛 수능 형식이 새 교육과정 취지를 훼손해 결국 교육과정 개편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능력 배양을 위한 수능이라는 점도 문제다.

특히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신설이다. 문과 학생들은 사회과목만, 이과 학생들은 과학과목만 공부하는 '학습 편식'을 막고자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과목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들 과목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문과 학생들은 여전히 사회탐구만, 이과 학생들은 과학탐구만 공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학이 기존처럼 이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가형과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나형으로 나뉜 점도 또 다른 이유다.

대교협 자료개발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장광재 수석고 진학실장은 "현재 중3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한다. 이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 '진로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번 수능 개편안이 1년 유예되면서 중3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수능을 봐야될 처지가 됐다"며 "교육과정과 수능이 상충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현재 중2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중2는 중3의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불안감이 확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연합뉴스



양동 새들마을 도시가스 공급.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양동3 새들마을 108광장에서 열린 '새들마을 사업지구 내 도시가스 준공식'에 참석한 임우진 서구청장과 주민이 마을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연습한다.

내년에 고교 과정에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은 현행 수능에 없는 과목인 만큼 2021학년도 수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방식도 현행처럼 영어와 한국사 영역만 절대평가이고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다.

문제는 학생들이 바뀐 교육과정과 수능체제가 달라 혼선과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편이 미뤄져 2021학년도에는 현 수능체제를 따르면서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1학년 수준의 공통과목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5 | 해질 15:35
해짐 19:00 | 달짐 01:11

나들이 가기 좋은 주말
10°C 내외의 일교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조금	18/30	보성	구름조금	15/27
목포	구름조금	20/29	순천	구름조금	19/30
여수	구름조금	20/27	영광	구름조금	16/29
나주	구름조금	16/30	진도	구름조금	19/28
완도	구름조금	19/30	전주	구름조금	16/28
구례	구름조금	14/30	군산	구름조금	17/28
강진	구름조금	17/30	남원	구름조금	15/28
해남	구름조금	17/30	축산도	구름조금	20/25
장성	구름조금	16/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2.5	북~북동 2.0~4.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매우높음
파부질현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21	09:35
	15:56	23:00
여수	11:24	05:15
	--:--	18:42

◇주간 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	☀	☀	☁	☀	☀	☀
18/28	18/29	19/29	21/26	22/28	21/29	18/29

통합형 수학·사회·과학 가능성 EBS 연계 축소...절대평가 범위 관심

2022 수능 어떻게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현 중2 학생들이 보는 2022학년도 수능은 어떤 식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 유예 방침에 따라 2022학년도 수능은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첫 수능이 된다.

문·이과적 소양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새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교과목과 교과서·수업방식 등이 모두 바뀌며 이런 변화를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담아내야 한다.

개편안은 내년 8월 대입정책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과 함께 나온다.

정부는 수능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을 지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이전 정부와 크고 작은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만큼 정부가 수능개선위원회를 새로 꾸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논의의 큰 틀은 시험영역을 개편하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우선 수학영역의 경우 문·이과 통합 실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의 가형/나형 분리출제 체제를 버리고 통합형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교과과정에 신설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학습 편식을 막고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지식을 두루 배우도록 하겠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가장 잘 나타난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70% 수준인 EBS-수능 연계 비율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2학년도 수능에서 추가로 축소될지도 관심사다.

문제는 절대평가의 범위다. 절대평가를 몇 개 영역에서 적용할 것인지, 문제지에 따라 교과목과 교과서·수업방식 등이 모두 바뀌며 이런 변화를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담아내야 한다.

이영덕 대학협력개발연구소장은 "당초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논란이던 부분은 절대평가 확대 과목과 변별력 우려, 문·이과 통합 취지 반영 등이었다"며 "앞으로도 수능 개편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전 과목을 절대평가할 경우 정시에서 대학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연합뉴스

학종전형 대수술 불가피...추천서·경시대회 제외 검토

정부,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포괄 개혁방안 내년 8월까지 마련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2022년으로 1년 미루고 포괄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전형) 등 다른 입시 제도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학종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요소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종전형의 경우 입시제도에서 수능보다 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암초에 부딪힌 것은 학종전형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평가는 이달 열린 더미래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현행 학종전형의 비교과 영역 비중이 지나치게 커 공정성 논란과 수험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능 개편안 유예로 학종에 대한 잡음이 더 불거진 만큼 '될 놈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만연한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자격증 등을 학생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추천서를 비롯해 학생·교사의 부담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학생부 기재양식을 바꿔 사교육 유발

요소를 없애겠다"며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학종전형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다양한 교육·입시제도를 손보는 만큼 현 정부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역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들이 입시에 휘둘리지 않고 진로 교육을 받으면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성공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제5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명품 강연문화를 선도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흥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 중 한명이다. 1979년 라디오 프로그램 '기요행진' MC로 데뷔한 뒤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시트콤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넘나들면서 시대를 풍미했던 방송인.	 박정자 한국 연극계 거장, 국내 연극 무대를 이끌어온 배우다. 1962년 연극 '페트라'로 데뷔해 정상급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영영이별 영이별', '제 여자 이야기' 등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영화 '마스터' 등 스크린 '박수건달'에서도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정철 국가대표 카피라이터. 대기업부터 물란과 아이젯 등 영화까지 25년 광고 카피를 쓰고 있다. 정치광고에 따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바람이 다르다'는 카피를 쓴 문재인대통령의 카피라이터.	 권은진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에 컨디티어라는 이름으로 출연. 17cm라는 모델치고는 작은 신장에도 패션쇼와 광고모델까지 섭렵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슈퍼모델.	 고규홍 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한국의 대표적 생태학자다. 전리포수목원에서 2009년 세월 나무와 함께 살을 보냈다. 우리가 몰랐던 나무의 이야기,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전하고 있다.	 이두헌 '수요일엔 빨간 정미롤', '풍선', '새벽까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다섯손가락의 리더보컬. 이후 유학을 떠난 뒤 현재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왕성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김홍신 장편소설 '인간시장'을 펴낸 소설가.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다.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소설을 넘어 수필, 시집, 콩트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정부희 프랑스에 '파브르 공종기'가 있다면 한국에는 '정부희 공종기'가 있다. 사비를 털어 개인 공종연구소를 마련하는 등 대중들에게 쉽게 공종을 소개하고 있는 공종학자다.	 박재동 근대 만화가 보여준 풍자 정신을 우리 시대에 계승한 만화가다. 국내 만화계의 거장으로 80년대 후반 민주화 세대의 진보의식을 대변한 만화 운동가이자 시사만화가.
---	--	---	---	--	--	--	--	--